

반갑습니다.

2022년도 수석부회장의 중책을 맡아보고자 나선 운영부회장 이봉두입니다.

지난 3년간 부산건축가회 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회원님들의 열정에 동화되어 가는 저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 동안 선배, 벗들의 많은 노력에 얹혀 편히 건축인의 삶을 살았다는 반성으로 큰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회원님들의 협회사랑과 열정을 알기에 기회가 된다면 회원들과 **함께**하면서 건축가의 **자긍심**과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저희 부산건축가회 60주년입니다. 환갑입니다.

저희 조서영 회장님을 필두로 부산건축가회 60주년위원회가 구성되어 60년 세월을 지켜온 선배건축가님들의 마음을 이어나가면서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미래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는 '60주년 운영위원장'의 중책도 맡고 있는데 조서영 회장님을 도와, 회원님들의 마음 모아 나온 결과를 집행해 나가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회가 된다면,

- 회원들의 마음을 모으고 모인 마음을 집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회원들이 행동하고 참여해서 회원 됨이 뿌듯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현 집행부의 신입회원확보 노력을 이어가면서 신입회원들에게 회원의 자긍심을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회원들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회원들의 의지와 이해가 공유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좀 더 연구하고 많은 회원분들의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60주년 슬로건을 외쳐봅니다

부산건축가회 60주년 --- **열정의! . 건축가!**